

“올해 KLPGA 상금왕, 내년엔 LPGGA”

KLPGA 이글 '빅3' 허윤경

데뷔 후 5년 동안 상금랭킹 2위만 두 번
1위 목표로 끝까지 휴식 끝! 미국전훈 돌입
류현우·박준원과 라운딩...훈련 본격화
4월 LPGGA 첫 메이저 대회도 출전 예정

2015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 데뷔 6년차를 맞은 허윤경(25·SBD)도 강력한 여왕 후보 중 한 명이다. 전인지(21·하이트), 이정민(23·비씨카드)과 함께 KLPGA 투어를 이끌 '빅3'로 주목받고 있다.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스트로베리 팜스 골프장에서 여왕 등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허윤경을 만났다.

●최고 성적 속에서도 아쉬웠던 2014년

허윤경은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2승을 수확했다. 7억38만원을 받아 김효주(20·롯데)에 이어 상금랭킹 2위에 올랐다.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특히 시즌 최종전이었다던 ADT챔피언십은 지금도 진한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허윤경은 “정말 너무 아쉬웠다. 여유 있게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위였던 전인지가 정말 잘 쳤다. 10번홀에서 이글을 하면서 2타차가 됐고, 곧바로 11번홀에서도 버디를 기록해 순식간에 1타차로 좁혀졌다. 그때부터 나도 의식이 됐다. 우승하기 위해 집중했다. 2인타파를 쳤으니 잘 못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전인지가 6인타파를 기록하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위기를 뚫고 멋지게 파 세이브에 성공해 단독 2위를 지켰다. 두 번째 샷에서 작은 실수를 저지른 탓에 공이 워터 해저드에 빠졌다. 1타를 더 잃으면 공동 2위로 내려앉을 처지였다. 그러나 허윤경은 4번째 샷을 그린 근처에 떨어뜨린 뒤 5번째 샷으로 공을 홀에 집어넣었다. 더 이상 타수를 잃지 않으면서 2위로 시즌 마지막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허윤경은 “우승하지 못해서 속상하긴 했지만, 그나마 2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작은 위안이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2개월 동안 업그레이드 준비!

허윤경은 미국 전지훈련에 앞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스키를 타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달콤한 휴식을 즐겼다. 그녀는 골프 다음으로 스키를 좋아한다. 허윤경이 스키 마니아가 된 데는 나름 확실한 이유가 있다.

허윤경은 “스키를 무척 좋아한다. 즐기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체력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겨울에는 강원도 용평의 스키장을 자주 찾았다. 새벽에는 일부러 코스를 거꾸로 올라간 뒤 내려오기도 했다. 스키를 신고 코스를 거꾸로 올라가는 건 보통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한 달 남짓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던 허윤경은 일주일 전부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4월 미국에 도착해 집을 쫓겨나는 것만 먼저 인근에서 훈련 중인 류현우(34), 박준원(29) 등 선배 프로골퍼들을 만나 가볍게 라운드를 하며 몸을 풀었다. 이제는 조금씩 훈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3월 말까지 미국에 머물 허윤경은 “2월 말에는 LPGGA(미국여자프로골프) 2부격인 시메트라 투어에 출전해 중간 점검을 하고, 4월 초에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프레이션에서 LPGGA 선수들을 상대로 실력을 겨뤄볼 계획이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허윤경은 KLPGA 투어 상금랭킹 2위 자격으로 ANA 인스프레이션 출전 자격을 얻었다.

3월 말까지 미국에 머물 허윤경은 “2월 말에는 LPGGA(미국여자프로골프) 2부격인 시메트라 투어에 출전해 중간 점검을 하고, 4월 초에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프레이션에서 LPGGA 선수들을 상대로 실력을 겨뤄볼 계획이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허윤경은 KLPGA 투어 상금랭킹 2위 자격으로 ANA 인스프레이션 출전 자격을 얻었다.

●‘상금왕+LPGA 진출’이 목표!

허윤경은 올해 2가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아직 한번도 이루지 못한 상금왕과 LPGGA 투어 진출이다. “데뷔 후 5년 동안 상금랭킹 2위만 2번 했다. 이제는 1위를 하고 싶다. 올해 그 꿈을 이루는 게 목표다.”

2015년 KLPGA 투어는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효주, 장하나(23·비씨카드), 김하늘(27·하이트진로) 등 역대 KLPGA 투어 상금왕을 지낸 거물급 스타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다. 물론 남아있는 강자들도 많다. 그러나 상금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사실이다.

허윤경도 역대 상금왕들처럼 1인자가 된 뒤 메이저 무대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녀는 “골프선수라면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가 LPGGA 투어이지 않은가. 올해 K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다음 내년엔 LPGGA 투어로 진출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바게 웃었다.

어바인 (미 캘리포니아주)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승을 수확한 허윤경은 올 시즌 상금왕을 차지한 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꿈꾸고 있다. 허윤경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어바인(미 캘리포니아주) | 주영로 기자

男핸드볼 대표팀 고교생 뽑다

윤경신 신임 감독, 올림픽 앞두고 세대교체 천명

한국 핸드볼이 낳은 최고의 스타 윤경신(42·사진)이 위기의 남자핸드볼 대표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6일 남자핸드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윤 감독은 11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남자핸드볼이 힘든 시기인 줄 안다. 책임감을 갖고 (내가)가진 노하우를 다 쏟아 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감독은 이어 “선수로서 5번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6번째 올림픽은 감독으로서 나가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대한핸드볼협회회는 11월 시작되는 2016리우올림픽 지역 예선전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이른 2월에 새 감독을 선임했다. 윤 감독은 2월말~3월초 사이 대표팀을 태릉선수촌에 소집해 첫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11월까지 시간이 많고, 어차피 4월 리그가 개막되면 곧 해산될 상황이지만 대표팀 선수들의 ‘기장’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감독은 “중동세가 강해졌다. (한국이) 올림픽 티켓을 따내려면 장정인 스피드를 더 키우고, 체력과 조직력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훈련량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도 경기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트레이너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관리도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국제대회에서 여자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은 남자핸드볼의 위기를 돈으로 용병을 사와 전력 보강하는 중동국가의 특세 같은 외부요소에서만 찾지 말고, 내부의 정신력 강화로 돌파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리우올림픽 티켓이 절실하지만 윤 감독은 장기적인 과제로 세대교체를 내걸었다. 실제 이번엔 발표된 대표팀 엔트리에 고교생이 2명이나 들어있다. 대전 대성고 골키퍼인 박재용과 부천공고 라이트백 김연빈이 그 주인공이다.

김연빈은 “대표팀 ‘삼촌’들하고 패기 있게 준비하겠다”고 수줍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연빈의 아버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경희대 김만호 감독이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핸드볼 국가대표가 된 것이다. 윤 감독은 “(김중이 안 되어서) 무섭다고 노장만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당장 실력이 떨어져도 고교와 대학선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대한체육회-KOC 분리 반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반대 성명

대한체육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되, 대한올림픽위원회 설립 근거를 신설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독립적 의사에 반해 KOC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올림픽현장 제27조 9항에 따라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NOC 인준이 취소돼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계종목 경기단체장의 KOC 분리 반대 성명 발표, 국가대표선수들의 교문위 법안소위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희 기자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그것 참 신통하다!

12步

계조하기가 제 215-21-23935.9 (음이온 압봉 붙이는 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제품이구나!

참 좋은데... 일단 써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

붙이고 12걸음만 걸으면 가뿐해진다는 12보!

걸리고 쭈시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신통방통 - 강력한 음이온 지속 방출 칩 부착 패치

50분 한정
파격구매 찬스!!!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2013서울민원06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4@naver.com

강력! 200CC 덤프트럭

호도선물!!최고!!

일반농가, 어촌부둣가, 공장에서,
건설현장, 과수원에서

상담전화 070-7841-3753

www.hmts.co.kr

070-7841-3754

산길, 시골길, 자갈길, 진흙밭, 백사장,
험한지형, 레저스포츠용!

넘치는 파워! 거침없이 몰린다!

펜션, 농장, 축사, 캠핑장, 유원지,
서바이벌게임장, 임대사업 최고수익!

2015년 1월 한달!! 단 한번 30%특별할인 300대 한정!

4륜 ATV